

2020 부활주일

살아나서 일어나리

1, 죄인된 사람 그리고 변화

(1) 죄인

Derek Prince 목사님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딤후 3:1(“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후의 시대라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이다. 어려운 때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움의 현상이 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아니다.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딤후 3:1 이후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 변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저지른 죄로 인해 사람은 고통 아래에 있게 되었다. 죄로 인해 육이 되어버린 사람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받는다. 벗어날 길이 없다. 사람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다. 그리고 결말도 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어한다. 사람은 누구보다 변화를 갈망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이다. 심판을 알기에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죄인 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으셨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지 못한다. 신앙은 바로 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의 핵심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변화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

2. 에스겔 37장

(1) 마른뼈 - 질문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장이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질문하신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37:1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 교회가, 일터가 이 나라가 살 수 있겠는가? 이 고통의 때에 (경제적 지진이 오고 있는 시대) 과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내가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2) 생기 그리고 변화, 살아나리라!

[에스겔 37:5-6]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8-10]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공통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반복된다.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 있는 모양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는 없었다. 성경에서의 생명은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아무리 겉모양이 사람의 모양을 한다 해도, ‘생기’가 없다면 아직 죽어있는 것이다.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오늘 죄인 된 마른 뼈와 같은 인간들의 궁극적 변화는 ‘모양’의 변화가 아니다.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3)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오늘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의 변화는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는 형태적 변화가 아니다. 생기가 불어와야 한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또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마른 뼈들이 이미 살아났다. 이것이 부활이다. 속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생기가 들어온 마른 뼈들에 대하여 에스겔 37:10에 기록되어 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말씀이다. ‘살아나서 일어나’ 죽은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살아있다. 산 채로 일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서는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일어서는 것이다. 일어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알게 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움직이라’, 나는 이미 ‘산사람’이다. 죽은 채로 일어설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좀비’이다. 우리는 죽은 채로 다니는 좀비가 아니다. 이미 일어난 그 상태가 ‘군대’이다.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너졌다. 초대교회는 생명력 있는 성령 충만한 군사를 배출해 내는 군대였다. 이제 각 영역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각 영역의 돌파가 있을 것이다. (오순절을 대망하여 기도하자)